

動向노트

失業率 變化要因 分析

田 裁 植*

▷ 주요 목차 ◁

- I. 序 論
- II. 失業率의 概念 및 決定要因
- III. 失業率의 推移 및 要因分解

I. 序 論

1997년도 실업률은 2.6%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의 2.0%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서 이같은 급등세는 지난 1980년 이후 가장 큰 증가다. 그러나 향후 경기침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업률은 이보다 더욱 급등할 전망이다. 이는 그간 우리 산업의 원동력이 저비용에 의한 수출주도형 산업이었음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의 불안은 자칫 경기침체를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실업문제이다. 따라서 실업은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어떤 원인으로 실업상태로 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실업률의 개념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각각의 변화요인들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실업률 상승요인을 성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韓國勞動研究院 研究員

II. 失業率의 概念 및 決定要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수의 비율로 구해진다. 여기에서 실업자란 조사대상 주 간 중 수입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를 말하며, 과거에 구직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일기불순, 구직결과 대기,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실업률 변화요인은 인구변화 효과, 경제활동참가율 변화효과, 취업자 변화효과와 3가지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이 중 인구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실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취업자수의 증가는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업률의 증감은 이들 3가지 요인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률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left(\frac{U}{L}\right) &= \frac{r \cdot P - E}{r \cdot P} = 1 - \frac{E}{r \cdot P} \\ \Delta\left(\frac{U}{L}\right) &= \frac{\Delta r \cdot E}{r^2 \cdot P} + \frac{\Delta P \cdot E}{r \cdot P^2} - \frac{\Delta E}{r \cdot P} \\ &= \underbrace{\left(\frac{E}{r^2 \cdot P}\right) \Delta r}_{\text{참가율변화효과}} + \underbrace{\left(\frac{E}{r \cdot P^2}\right) \Delta P}_{\text{인구변화효과}} - \underbrace{\left(\frac{1}{r \cdot P}\right) \Delta E}_{\text{취업자변화효과}} \end{aligned}$$

단, P : 생산가능인구, L : 경제활동인구, r : 경제활동참가율,
E : 취업자, U : 실업자, U/L : 실업률

III. 失業率의 推移 및 要因分解

1993년 이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던 실업률은 1997년 들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실업률 변화추이를 성별·연령계층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는 1996년에 비해서 0.5%포인트 상승하였고, 여자는 0.7%포인트 상승하여 여성의 실업률 상승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성별·연령별 실업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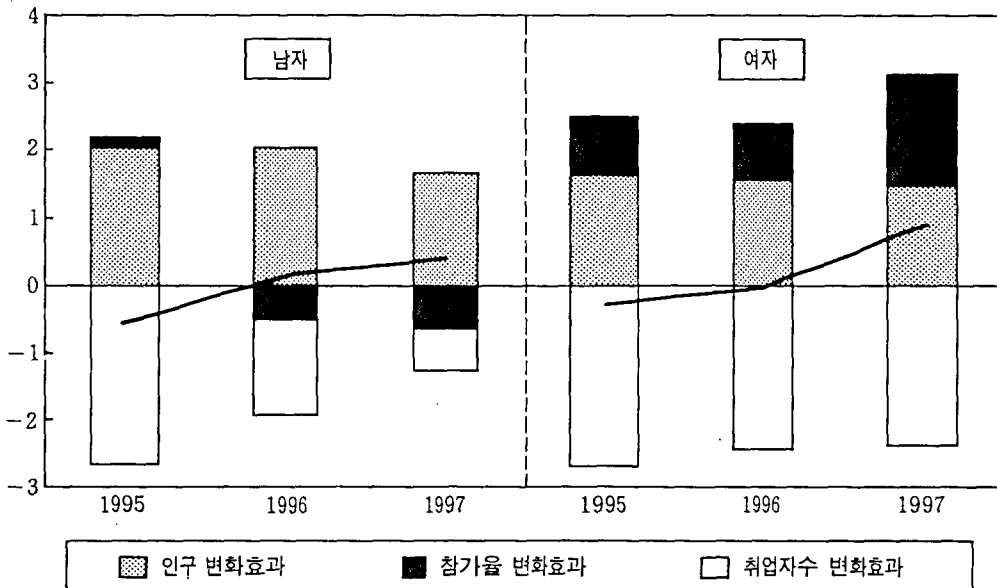
	1996			1997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연령	2.0	2.3	1.6	2.6	2.8	2.3
15 ~ 19세	7.5	8.9	6.6	9.9	11.6	8.7
20 ~ 24세	5.9	8.2	4.5	7.2	8.9	6.2
25 ~ 29세	3.4	4.1	2.0	4.1	4.9	2.8
30 ~ 39세	1.4	1.6	0.9	1.9	2.1	1.6
40 ~ 49세	1.1	1.4	0.7	1.5	1.6	1.3
50 ~ 59세	0.9	1.2	0.4	1.3	1.6	0.6
60세 이상	0.4	0.5	0.1	0.8	1.0	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15~19세 청소년 계층의 실업률은 다른 연령층에서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40대 연령층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실업률 상승폭이 높았는데, 이는 이 연령층의 여성들 대부분이 전업주부임을 고려할 때 가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으나 구직의 어려움으로 취업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실업률도 전년에 비해서 두배 가량 상승하였다.

[그림 1]은 1995~1997년까지 우리나라 실업률의 변화요인을 성별로 분해한 결과이다.

[그림 1] 성별 실업률 변화요인 분해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남성의 경우는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가 실업률 상승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연령의 상승,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인하여 그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1997년의 경우 상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가노동자효과(added worker effect)에 의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였다. 즉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시장의 악화로 주요 노동력층이 실업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등 가정내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대폭적으로 유입되었다. 따라서 높은 취업자 증가율의 지속과 아울러 실업률도 상승하였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채용 억제 등 고용흡수력이 둔화되어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조).

이상에서와 같이 실업률 상승의 요인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1997년도의 실업률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상승요인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뚜렷한 차이가 난다.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급증으로 인하여, 남성은 취업자 증가율 둔화로 인하여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실업률은 이와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계속되는 경기불황, IMF 자금지원 신청조건에 따른 긴축재정·금융정책 실시,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흡수력이 크게 둔화됨으로써 실업률은 남녀 모두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성별 고용지표 추이

